

우범기 전주시장, 김관영 지사에 협조 요청

조직개편·대한방직 부지개발·완주·전주 통합 추진 등 주요 현안 적극 지원 건의

우범기 전주시장이 김관영 전북도지사에게 민선8기 전주시정에 대한 협조를 구하며 전북도와의 소통과 협력 강화에 나섰다.

우범기 시장은 지난 15일 전북도청을 방문해 김관영 지사를 만난 자리에서 대한방직 부지개발과 완주·전주 통합 추진 등 민선8기 주요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만남은 민선8기에 새로운 수장을 만난 전북도와 전주시가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야 전북과 전주 발전이 가능하다는 지론을 바탕으로 한 우 시장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우 시장은 먼저 '우범기호' 닳을 올린 민선8기 전주시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전북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공무원 인사교류를 활발히 함으로써



우범기 전주시장은 지난 15일 전북도청을 방문해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만난 자리에서 대한방직 부지개발과 완주·전주 통합 추진 등 민선8기 주요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조직의 활력을 높이는 등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질을 높이자고 했다.

우 시장은 완주·전주 행정 통합 추진과 관련해서도 전북도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이날 김 지사와 우 시장은 공동 공약인 대한방직 부지개발에 대해 면밀히 검토는 하되 신속하게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등 최대한 힘을 모으자고 했다. 이들은 전북도와 전주시의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우 시장의 이번 건의를 시작으로 향후 실무부서별로 전북도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북도와 전주시가 각종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면서 "앞으로도 사안이 생기면 도와 시가 언제든지 소통하고 협조해 지역발전을 견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연꽃 만개' 덕진공원 포토 이벤트

전주시, 31일까지 매주 주말 사진 인화 부스 등 운영

전라북도 대표관광지인 전주덕진공원에서 가족·연인과 주말 나들이를 즐기는 방문객들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가 펼쳐진다.

전주시는 지난 16일부터 이달 말까지 매주 주말 덕진공원 일원에서 방문객을 대상으로 '덕진공원 하계 포토 이벤트'를 진행한다.

전라북도 대표관광지 덕진공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연꽃이 만개한 덕진공원에서 진행되는 이 행사는 △스냅사진 촬영용 의상 및 소품 대여 △사진 인화 부스 운영 △피크닉 세트 대여 △덕진공원 속 '한 번뿐인 날' 이벤트 △스냅사진 촬영 이벤트 등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됐다.

특히 한복·근대의상·웨딩의상 등 의상 대여 이벤트 참가자에게는 1인당 1매 사진 인화 서비스와 스냅사진 촬영 이벤트를 제공한다. 의상 대여 이벤트 참여자가 덕진공원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을 SNS에 지정 해시태그와 함께 업로드 할 경우에는 추가 인화(1매) 서비스와 함께 제작된 미니 포스터도

선물한다.

덕진공원 포토 이벤트는 덕진공원을 방문하는 누구나 하루 최대 50명까지 선착순 현장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전주시 관광산업과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연화정도서관, 연화교 등 새로워진 덕진공원의 매력을 많은 분들이 보고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전통과 생태, 문화를 담은 전주시 대표공원인 덕진공원을 전주한옥마을에 버금가는 관광명소로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5년부터 오는 2024년까지 총 203억 원(도비 90억 원, 시비 113억 원)이 투입되는 '전라북도 대표관광지 덕진공원 조성사업'을 통해 기존 연화교와 연화정을 철거하고, 전주의 정체성을 담아 전통 석교 형태의 연화교와 전통정원을 갖춘 전통한옥 형태의 연화정을 재건축하는 등 다양한 관광진흥사업을 펼쳐오고 있다.

/김윤상기자

'오송제·지시제·맛내제·서은제' 낚시금지구역 지정

전주시, 수질오염 예방·쾌적한 생태공원 이용 환경 제공 위해...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전주시 송천동 오송제, 평화동 지시제·맛내제, 효자동 서은제 등 저수지 네 곳의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낚시금지구역로 지정했다.

이로써 낚시금지구역로 지정된 저수지는 기존 전북혁신도시 기지제, 인교제(아중저수지), 예곡시터 백석제를 포함해 총 7곳으로 늘어났다.

전주시는 수질오염 예방과 시민들에게 쾌적한 친수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오송제, 지시제, 맛내제, 서은제를 낚시금지구역로 지정·고시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낚시금지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저수지들은 네 곳 모두 주변 도시개발로 인해 공원화되면서 산책로를 이용하는 인구가 급증하고, 낚시로 인한 쓰레기 발생과 수질오염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빈번한 곳이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달 15일부터 이

달 5일까지 20일 동안 낚시금지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를 거쳐 왔으며, 이날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낚시금지구역으로 최종 지정·고시했다.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전주지역 저수지에서는 모든 낚시행위가 금지되며,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앞서 시는 그간 시민들에게 도심 속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오

송제, 지시제 등 도심저수지 산책로 이용편의를 위해 데크 정비 및 제초 등 환경정비를 추진해왔다.

전주시 복지환경과 관계자는 "생태공원으로 조성된 저수지에서 낚시행위로 인한 수질오염 예방과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태공원 이용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면서 "저수지 내 낚시금지 조치를 지키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쾌적한 도시 만들기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야호학교, 로컬프로젝트 청소년 성장 나눔 발표회 개최

전주형 창의학교인 '야호학교'에서 성장한 청소년들이 스스로 기획한 자치활동의 성과를 공유했다.

전주시 야호학교(교장 장경수)는 지난 16일 야호학교 4층 두빛나래 공연장에서 청소년과 부모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야호학교 2022년 1기 로컬프로젝트 참여 청소년들의 자치활동 성과를 공유하는 '야호 성장 나눔 발표회'를 개최했다.

야호학교는 청소년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것에 대해 생각하고 스스로 행복한 삶의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전주형 창의교육 모델이다. 로컬프로젝트는 청소년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돕기 위해 추진해 온 야호학교의 핵심 사업이다.

올해 야호학교 1기 로컬프로젝트에는 청소년 56명과 특활활동단 활동가 8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3월 19일부터 창작·봉사·제빵·미용 분야의 8팀이 18회에 걸쳐 활동에 참여했다.

이날 야호 성장 나눔 발표회에는 △바이미즈 △다현 △아크로매틱 △야호 △에수리 △꾸꾸루뽕 댄스 △야호 △스테뮬레제뽕 총 8팀이 참여해 다양한 볼거리와 함께 자치 프로젝트 활동의 성과를 선보였다.

야호학교 4층 라온마루에는 △창작 네일팁 부스 △관찰나무 작품 전시 부스 △야미(Yummy)부스 △야호학교 추억의 포토존 부스 등 행사 참여자에게 즐거움을 제공하고 프로젝트 성과물을 전시하는 부대행사도 마련됐다.

시는 이날 말부터 2022년 2기 로컬프로젝트에 참여할 청소년을 선착순으로 모집할 계획으로,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전화(063-281-6584)로 문의하면 된다.

장경수 전주시 야호학교 교장은 "야호학교 발표회는 결과물로 평가하는 자리가 아닌 프로젝트를 참여하는 과정 안에서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나누는 자리로, 참여 청소년간 서로를 격려하며 즐겁게 소통하는 자축의 장"이라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젝트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트윈세대 대상 크리에이터 양성 프로그램 운영

전주시립 송천도서관 미디어 창작공간서 유튜브 채널 운영 등 교육

일반시민들을 위한 미디어 창작공간이 갖춰진 전주시립 송천도서관에서 미디어 창작자를 꿈꾸는 트윈세대(12~16세)를 위한 전문 교육이 진행됐다.

전주시는 지난 16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시민들의 지식문화콘텐츠 소비 증대에 대응하는 동시에 청소년들의 창작 역량 강화 및 문화 향유를 위해 크리에이터 양성 프로그램인 '저는 미래에 00이고 싶어 요!'를 운영한다.

이날 첫 수업에서는 △유튜브의 시작 △동영상 촬영 △1인 미디어 분야 탐색 △제작권과 촬영 장비에 대한 교육 등이 진행됐다.

이어 △미디어 다운로드 △나만의 콘텐츠 소재를 담은 기획안 작성 △촬영 시나리오 작성 △동영상 촬영 및 편집 △오프닝·클로징 씬에 일 이해 △동영상 업로드 설정 등 실제 유튜브 채널 운영과 미디어 창작자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 순차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송천도서관 미디어 창작공간은 영상 제작 및 편집에 도움이 되는 카메라, 편집 및 송출용 컴퓨터, 크로마키 스크린, 음향믹서, TV 등 각종 방송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사전 예약 후 공간 대여 및 장비 이용이 무료로 가능하다.

송천도서관은 이번 트윈세대 대상 미디어 창작 프로그램에 이어 오는 11월까지 △나의 인생책을 소개합니다 △1인 미니 프레젠테이션 △디지털 배움터도 운영할 예정이다.

최라기 전주시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은 "다양한 미디어 창작 프로그램이 시민들의 온라인 콘텐츠 제작에 대한 갈증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프로그램을 진행한 이후에도 송천도서관 미디어 창작실 공간 대여를 통해 영상을 만들며 송천도서관을 이용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윤상기자

주거취약계층 태양광 발전 설비 무료 설치

전주시 주거복지센터·서전주로타리클럽·에코스ENC, 지원사업 추진

전주시 주거복지센터(센터장 오은주)와 서전주로타리클럽(회장 문우진), ㈜에코스ENC(대표 이병섭)는 최근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해온 완

산구 소재 주거취약계층을 찾아가 가정용 태양광 발전 설비를 무료로 설치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올해로 두 번째로 진행된 가정용 태



전주시 주거복지센터(센터장 오은주)와 서전주로타리클럽(회장 문우진), ㈜에코스ENC(대표 이병섭)는 최근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해온 완산구 소재 주거취약계층을 찾아가 가정용 태양광 발전 설비를 무료로 설치했다.

양광 발전 설비 무료설치 지원사업은 평소 전기료의 걱정을 많이 하는 다세대 기구와 장애인 기구 등 총 27구가 대상이었다.

전주시 주거복지센터가 대상 가구 발굴을 도왔으며, 서전주로타리클럽이 사업을 총괄했다. 태양광 발전설비 제공과 시공은 에코스ENC가 맡았다.

전주시 주거복지센터는 재원 기부와 재능 기부가 결합해 이뤄진 이 사업을 통해 대상가구가 에너지 사용량이 급증하는 폭염에도 전기요금 부담 없이 냉방기구를 사용할 수 있게 돼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우진 서전주로타리클럽 회장은 "앞으로도 주거 취약계층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은주 전주시 주거복지센터장은 "주거 취약계층이 전기료 절감을 통해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민간지원과 연계해 에너지 사각지대를 적극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는 지난 15일 위드코로나 이후 재개장한 화산체육관과 빙상경기장을 찾아 시설과 이용실태를 점검했다.

전주시의회 상임위, 현장방문행정 펼쳐

행정위, 화산체육관·빙상경기장 찾아 시설 점검 도건위, 종합경기장 MICE산업단지 개발 현황 점검

전주시의회(의장 이기동)가 제394회 임시회를 맞아 현장방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위원장 정성길)는 지난 15일 위드코로나 이후 재개장한 화산체육관과 빙상경기장을 찾아 시설과 이용실태를 점검했으며,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박선진)는 도시숲, 문화시설 조성 등 함께 MICE시설 인프라 구축이 추진중인 종합경기장 현장을 찾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의견을 수렴했다.

현장점검에서 정성길 행정위원장은

"화산체육관과 빙상경기장은 생활체육을 즐기는 시민들이 자주 찾는 장소"라며 "코로나로 긴 시간 기다려온 시민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적극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박선진 도시건설위원장은 "종합경기장은 전주시민의 마음이 담긴 지역 거점"이라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함은 물론 순조로운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해달라"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불법광고물 정비로 쾌적한 완산구 만든다

19일~8월 5일 합동단속 실시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김병수)는 이른 폭염과 코로나 긴장 완화로 이용객이 폭증하는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불법광고물 단속을 나선다.

이번 단속은 지난 6월 경·관 합동 불법단속단 단속에 이은 시즌2로 광고물·가로정비·위생업소 담당부서가 합동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풍선간판 등 불법광고물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집중단속구역은 서부신시가지, 중화산동, 전주객사 일대 등 야간 유흥업소 및 지속적인 민원대발지역으로 이달 19일부터 내달 5일까지 3주간 이루어진다.

이를 위해 완산구는 건축과를 중심으로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로 구성된 3개조 8명씩 합동점검반을 편성했

다. 이번 단속은 기존 현수막 위주의 불법 광고물 단속에서 벗어나 식품위생업소 등에서 무분별하게 설치한 풍선간판은 물론 무단 적치 반침대(풍선간판 보관통) 및 불법적 광고표시 내용까지 관련 부서 합동으로 입체적인 단속을 통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완산구는 이번 단속기간 동안 옥외광고물법, 도로법 및 식품위생법 등에 의한 설치 및 표시방법을 위반하는 불법 광고물 등은 강제수거 및 과징금 부과 등 즉각적인 행정처분을 시행할 계획이다.

김병수 완산구청장은 "그간 코로나 19 및 대외적 이슈 등으로 지역 경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불법이 만연하는 현실을 행정에서 방관할 수는 없으므로 도시미관을 해치고 시민들의 보행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완산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